

이강백 희곡 <파수꾼> 연구

- 군중을 통해 바라본 권력의 메커니즘 -

조은정*

<차례>

1. 서론
2. 등장인물을 통해 바라본 군중의 모습
3. 공포정치와 군중의 상관성
4. 권력 작동 원리의 승인구조
5. 결론

<국문초록>

이강백의 1970년대 초기 작품들에는 당시 정치적 현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그 상황들은 대부분 폭력적인 권력 구조를 장악하고 있는 지배계급과 이에 복종하고 있는 군중에 관한 것들이다. 작가는 70년대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공연법 등의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의적 기법을 이용한 알레고리 형태로 시대를 구현했다. 그래서 이 시기 이강백에 관한 작품 연구는 대부분 시대상황을 반영한 외재적 관점에서 다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작가가 밝혔듯이 우화(寓話)라는 것은 시대와 장소를 뛰어 넘는 보편적인 진리를 획득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는 내재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작품이 상징하고 있는 보편적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

본고는 연구의 텍스트로 이강백의 초기 작품들 중에서도 정치 비유적 알레고리의 특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파수꾼>에 주목했다. <파수꾼>은 이리떼의 습격이라는 공포와 무지한 군중, 그리고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총장이 '이리' 존재의 진실 여부를 두고 다각도 형태의 갈등을 그려내고 있다. 본고는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잘못된 형태의 통치 체제를 생산해내고 더욱 공고히 유지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보았다. 즉, 진실이 은폐된 상황에서 허상의 이데올로기에 쉽게 휩쓸리는 군중은 스스로 잘못된 권력의 통제 아래 편입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전체주의라는 통치이념을 만들어 낸다. 이처럼 발전하지 못하는 인물들의 반복된 행동은 앞으로도 악순환 될 비극적인 미래를 암시한다.

*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결론적으로 <파수꾼>은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폭력적인 권력 구조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전체주의로 묘사되고 있는 사회 구조가 결코 특정 지배 계급 뿐만이 아니라 여러 계층의 군중들이 모두 가담함으로써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재현했다. 이는 작품을 읽는 독자들에게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권력의 메커니즘에 대해 다각도적인 각성을 유도하며 다시 한 번 사회 구조에 대해 재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다.

주제어 : 공포정치, 군중, 권력, 전체주의, 폭력

1. 서론

1970년대 이강백의 <다섯>, <셋>, <알>, <파수꾼>, <내마>와 같은 초기 작품들은 주제의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진 않지만 대부분 비슷한 층위의 담론들을 일관성 있게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것은 바로 폭력적인 권력의 메커니즘과 그 밑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군중들의 모습이다. 작가는 현실 세계의 정치적인 상황을 직접적으로 연극에 옮기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 군사독재라는 암울한 시대상황은 우화적 희곡의 좋은 소재가 될 것¹⁾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는 수많은 희곡 대본들과 공연 활동이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정책에 하에 검열당하고 금지 당했다.²⁾ 이 같은 외부적 상황에 이강백은 직접적으로 인물이나 시대 상황을 노출시키기 보다는 우화(寓話)라는 우의적 기법을 사용하여 알레고리 형태로 현실을 재현했다. 이강백이 생각했던 우화는

1) 이강백, 『이강백 희곡전집 1』, 평민사, 2015, 9면.
 2) 박정희는 1971년 제 7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문예와 학술의 적극적인 장발로 문화 한 국 중흥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한다. 1974년부터 계획된 1차 문예중흥 5개년 계획은 본격적으로 문공부에 의해 시작된다. 그러나 1970년대 문화 정책의 핵심적인 측면 하나가 민족적 감성과 정서를 동원하여 국가 정권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나가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어느 선진국도 흉내 낼 수 없는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시대’로 받아들였을지 모르나 반대로 누군가에게 이 시기는 작품이 사전심사에 걸려 공연을 조차 제대로 올리지 못하는 치욕스럽고 분노를 느껴야 했던 시기였다. 박명진, 『국가 이데올로기와 연극 제도』, 『1970년대 희곡 연구 1』, 연극과 인간, 2008, 20~31면.

‘사실성의 결여로 현실성은 떨어질지도 모르지만 이 방법이 성공할 경우엔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는 보편성과 상징성을 획득 할 수 있는 것’³⁾ 이라 여겼다. 김성희는 이러한 초기극들이 현재까지 이강백이 발표한 전 작품들을 관통하고 있는 특질들을 배태하고 있는 원형⁴⁾이라고 설명했다. 그 중에서도 <파수꾼>은 초기 작품들 중에서 문제적 현실을 가장 우화적으로 잘 형상화 한 작품으로 꼽힌다.

이영미 역시 <파수꾼>을 사회 현실에 대한 정치 비유적 알레고리의 특성이 가장 짙게 드러나고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했다.⁵⁾ 김성희도 <파수꾼>은 분단 상황과 안보문제를 체제유지와 공포정치의 수단으로 삼는 정치현실을 예리한 비유로 그려내고 있다고 설명했다.⁶⁾ 백현미는 <다섯>이 위협과 감시의 기표가 지닌 체제 유지적 힘의 되풀이를 강조하고 있다면, <알>과 <파수꾼>은 이 기표의 정체를 문제 삼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통찰하고 있다고 했다.⁷⁾ 이처럼 <파수꾼>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그 당시의 시대 상황과 맞물려 비유되고 있는 정치적 비판의 의미로 외재적인 관점에서의 분석이 중점을 이룬다. 한편 이러한 연구 경향과 달리 김미선은 수용미학 관점에서 <파수꾼>이 정치적 시대상을 드러낸 단순한 문학적 장치가 아닌 부조리한 현실이 순환될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의 보편적인 비극성을 표현하며, 이 모순의 갈등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⁸⁾ 이상란은 <파수꾼>이 허위의식에 바탕을 둔 권력구조와 사회구성원의 일상을 통제하는 작동원리를 상징적 공간으로 형상화하여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⁹⁾ 이러한

3) 이강백, 앞의 책, 6면.

4) 김성희, 『이강백-알레고리의 시학』, 『한국 동시대 극작가들』, 박문사, 2015, 101면.

5) 이영미, 『이강백 희곡의 세계』, 시공사, 1998, 42~43면.

6) 김성희, 『한국 정치극 연구(1)』, 『한국극예술연구』 제18집, 한국극예술학회, 2003, 257면.

7) 백현미, 『이강백 희곡의 반복 구조와 반복의 철학』, 『한국극예술연구』 제9집, 한국극예술학회, 1994, 243면.

8) 김미선, 『수용 미학의 관점에서 본 희곡 <파수꾼>』, 『한국극예술연구』 제29집, 한국극예술학회, 2009, 211면.

연구들은 주로 마을 촌장의 독단적인 권력에 의해 파수꾼 다가 좌절당하는 현상을 포착하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었던 권력과 감시라는 기표에 주목한 것이다.

그러나 <파수꾼>에서 작동하고 있는 폭력의 주체가 단순히 마을 지도자인 촌장에게만 한정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폭력적인 권력이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배경에는 촌장을 제외한 나머지 등장인물들 즉, 다양한 형태의 군중들 또한 공포정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김남석은 1970년대 이강백의 초기 희곡들을 중심으로 이미 군중과 권력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는 초기 작품들 중 <파수꾼>을 기만과 허위의 권력 메커니즘으로 보고 소년 파수꾼이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첫째로 소년 파수꾼은 촌장의 권력 논리에 대항할 논리적 대안이 없었다. 둘째로 소년 파수꾼이 이리떼 존재여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 메커니즘 자체에 대한 정통한 이해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촌장의 허위로 조장된 위기감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다. 셋째는 소년 파수꾼이 군중 전체를 상대로 이해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다.¹⁰⁾ 소년 파수꾼에 대한 이 같은 분석에는 본고 또한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파수꾼> 안에서 권력 메커니즘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에는 단지 소년 파수꾼 다의 좌절뿐만 아니라 다른 등장인물들 모두 권력에 적극 복종하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관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파수꾼>에서 해설자와 촌장을 뺀 나머지 등장인물들이 모두 다양한 형태의 군중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관점을 전제한 채, 텍스트에서 작동하고 있는

9) 이상란, 『연극적 상상력과 담론통제』, 한국극예술학회, 『이강백』, 연극과인간, 2010, 149~169면.

10) 김남석, 『1970년대 이강백 희곡 연구』, 한국극예술학회, 『이강백』, 연극과인간, 2010, 253~273면.

군중과 권력의 메커니즘에 대해 조금 더 확대 된 논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파수꾼>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분석을 통해 그들이 상징하고 있는 군중들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러한 군중들을 상대로 한 촌장의 공포정치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지들의 상관성을 분석하려 한다. 마지막 4장은 앞의 분석을 바탕으로 군중들의 특성과 촌장의 지배가 어떻게 권력의 작동 원리를 승인하고 있는 지고찰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고는 <파수꾼>에 적용되고 있는 정치적 알레고리의 상징이 어떻게 보편적인 권력의 내재적 원리를 형상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목표로 삼고 있다.

2. 등장인물을 통해 바라본 군중의 모습

본고는 <파수꾼>에서 망루와 마을을 지배하고 있는 권력 구조에 등장 인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런 의미에서 <파수꾼>의 등장인물들은 군중의 다양한 특징들을 형상화 하고 있다.

첫 번째는 직접적인 등장이나 대사는 없지만 관객들을 이용하여 형상화하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다. 이 집단은 말 그대로 군중을 형상화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무리(Meute)지은 사람들’을 연상시킨다. 무리는 때때로 강력한 일체감을 발휘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적으로는 스스로 성장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¹¹⁾ 그래서 이들은 단순히 운반인의 말만 듣고는 크게 흥분한 채, “이리떼는 없구, 흰 구름뿐”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망루를 부셔버리기 위해 도끼를 들고 성난 상태로 몰려온다. 개인은 단지 군중의 숫자가 많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기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착각은 혼자 있을 때 억눌러

왔던 본능을 추구하도록 부추긴다. 그리고 군중들 사이에서 스스로 익명의 존재가 되어 단체 행동 결과에 대해 무책임해진다.¹²⁾

파수꾼 다는 망루 위에 올라간다. 긴 침묵, 마침내 부르짖는다.

다 이리떼다, 이리떼! 이리떼가 몰려온다!

(중략)

촌장 주민 여러분! 이것으로 진상은 밝혀졌습니다. 흰 구름은 없으며 이리떼뿐입니다. 이 망루는 영구히 유지되어야겠지요. 양철북도 계속 쳐야 할 것입니다. (중략) 수다쟁이 운반인의 처벌을 논의 합시다. 그럼 어서 돌아가십시오.¹³⁾

이강백(2015), 127.

파수꾼 다와 촌장의 거짓 연설에 마을 사람들은 또 다시 의심하지 않고 바로 수긍해 버린다. 그리고 이들은 곧바로 운반인의 처벌을 논의하기 위해 금세 마을로 돌아가 버린다.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과 관련된 것에 대해 확정성을 가지기 시작하면 무서울 정도로 변하지 않는다. 마을에서 ‘이리’의 존재는 그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공포’의 상징이다. 그들에게 이리의 존재 여부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리와 관련된 작은 소문에도 쉽게 휩쓸리고 흥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리의 존재가 지닌 한계는 화가 나서 망루까지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한 명이라도 직접 망루에 올라가 이리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나서는 개인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촌장에 대한 태도가 급작스럽게 분노에서 수긍과 지지로 변화하는 변덕스러운 반응을 보이며 사건은 급하게 봉합된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마을의 권력자인 촌장에게 아무런 저항 없이 다시 복종하게 된다. 그러므로 마을 사람들이

11) 엘리야스 카네티, 『군중과 권력』, 바다출판사, 2002, 223면.

12) 귀스타브 르 봉, 『군중심리』, 문예출판사, 2013, 38면.

13) 이강백, 앞의 책, 127면. 이하 작품 인용은 본문에 쪽 수만을 밝힘.

상징하는 군중의 무리는 권력의 이해관계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 지배계급에 의해 조작된 여론에 쉽게 휩쓸리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파수꾼 가’이다. 파수꾼 가 또한 마을 사람들처럼 무대에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림자와 소리를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 그는 오직 “이리떼다, 이리떼! 이리떼가 몰려온다!”와 “북소리 중지! 이리떼는 물러갔다”라는 대사만 간헐적으로 반복할 뿐이다. 이리떼를 관찰하기 위해 망루 위에 살고 있는 그는 평상시에도 망루 아래를 지키는 다른 파수꾼들과는 전혀 소통하지 않고 오로지 침묵으로만 일관한다. 이리의 존재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는 그의 침묵은 어린 파수꾼 다가 실천하려는 변화에 장애가 된다. 이렇게 침묵하는 자는 경직된 방법으로밖에는 자신을 위장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변화의 유동성이 거부된다.¹⁴⁾ 그런 의미에서 파수꾼 가는 이리의 진실을 밝히는데 반대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그는 마을의 권력 구조가 계속 유지되는 것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그는 오로지 파수꾼 나와 마을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통보를 명령식으로 내리는 일방적 관계를 유지한다. 유일하게 망루 위에 올라와 이리를 직접 볼 수 있는 인물이기에 파수꾼 가의 명령은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적이다. 게다가 넓은 황야를 보기 위해 망루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그의 위치는 물리적 위치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나 너는 낮은 곳에 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거야. 하지만 저 망루 위에 파수꾼은 아주 높은 곳엘 있지 않니? 그는 멀리까지 바라본다. 너하곤 위치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지.
이강백(2015), 100.

나 그래도 좋은 걸. 난, 너 오기 전엔 쓸쓸했었다. 위를 보렴. 저 망루 위의 파수꾼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 말벗도 안

됐다. 그래 난 하루 종일 홀로 있는 거나 다름없었지.
이강백(2015), 103.

파수꾼 나의 대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파수꾼 가는 마을 사람들과 같은 군중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인물들과는 차별된다. 높은 망루 위에 위치해 있는 그를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항상 고개를 꺾어 올려다봐야 한다. 이러한 물리적 위치는 나머지 군중들에게 무의식적으로 그를 우러러보게 하며 한층 더 전설적인 인물처럼 보이게 만들어 준다. 그는 이리에 대해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는 동시에 이 정보를 존장과 공유하는 관계이다. 그러므로 파수꾼 가는 존장과 같이 일종의 권력을 거머쥐고 있는 인물처럼 느껴진다. 왜냐하면 비밀은 독재에 부수되는 위엄을 집중시키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비밀은 여러 사람들에게 분산되어 그 힘이 약화¹⁵⁾되는 반면, 독재자라는 지도자가 있는 집단에서의 비밀은 권력으로 변모하며 체제를 유지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 특히 이러한 체계는 작은 집단일수록 그 효과가 더욱 크다. 즉 파수꾼 가는 다른 군중들과는 달리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며 존장에게는 복종한다. 또한 같은 군중들을 자신과는 다른 층위에 두며 자신의 명령을 통해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장하고 복종시키게 만든다.

세 번째는 ‘파수꾼 나’이다. 그는 <파수꾼>에서 가장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파수꾼 나는 파수꾼 가처럼 이리떼의 존재 여부에 대해 똑같이 진실을 알고 있다고 확정지을 순 없지만, 곳곳에 그의 대사를 통해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나 (중략) 방금 전 습격 때, 저쪽에서 탁 치이는 소리가 났었다. 너, 나하고 땃 보러 가지 않을래?

14) 엘리야스 카네티, 앞의 책, 396면.

15) 엘리야스 카네티, 앞의 책, 397면.

다 전 여기 있고 싶어요.
 나 이리가 걸렸으면 좋겠는데…… 그럼 다녀오마.
 (중략)
 나 또 헛쳤다. 교활한 짐승도 다 있지. 나뭇가지를 대신 끼워
 놓고 몸은 달아났지 뭐냐. 애야, 이 땃을 좀 함께 벌리자.
 이강백(2015), 101.

다 정말 이리가 있다구 믿으세요?
 나 보렴, 방금도 이리떼가 오질 않았나? 그렇지 않다면 내가
 왜 양철북을 치며 평생을 보냈겠느냐? 서운하다. 아무리
 아픈 애라지만 너무 심한 말을 하는구나.
 이강백(2015), 120.

촌장 오다 보니까 저쪽 땃에 이리가 치어 있습니다.
 (중략)
 나 드디어 잡는군요!
 이강백(2015), 121.

나 또, 헛치었습니다. 이리는 워낙 교활해서요, 친 것 같아도
 가보면 달아나구 없어요.
 촌장 다음에는 꼭 잡히겠지요.
 나 미안합니다. 이번에 잡았더라면 그 껍질을 촌장님께 선사
 하고 싶었는데…….
 이강백(2015), 125.

분명 이리를 본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수꾼 나는 나뭇가지가 낀 땃
 을 보여주며 이리가 교활하게 꾸민 짓이라고 어린 파수꾼에게 설명한다.
 그리고 파수꾼 나는 적극적으로 본인의 행동을 통해 그리고 타인을 통해

이리가 존재한다는 상황을 계속해서 확인 받으려고 한다. 또한 이리떼
 습격을 알려주는 북소리가 마을 사람들을 구해줄 수 있다고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북소리 때문에 마을사람들이 도망치다 발생하는 사고로 인
 해 오히려 부차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
 다.

나 마을은 어떤가? 난 양철북을 치면서도 걱정이 돼. 주민들
 은 잘 방비하고 있을까? 별일은 없겠지?
 운반인 이리 막는 거야 잘 하고 있죠, 뭐. 하지만 약방 영감 왜 그
 말라깽이네 약방 영감 말이에요. 그 영감이 지붕 위에서
 떨어져 두 다리를 몽땅 부러트렸지 뭐요. (중략)

나 그런 말 하는게 아냐
 운반인 그렇죠, 뭐. 지붕 위에서 떨어진 영감이 한둘이어야지요.
 (중략) 하니까, 우물 속에 빠져 죽은 아이 이야길 제가 했
 던가요?

나 그만 두게
 운반인 그렇죠, 뭐. 우물 속에 빠져 죽은 아이가 어디 한둘이어야
 죠.(중략)

나 그만 두래도!
 운반인 그렇죠, 뭐. 집 불태운 남자가 어디 한둘인가요? (중략)
 나 (역정을 내며) 제발 그만둬!
 (중략)

나 남의 불행을 재미있어 하면 안되네.
 이강백(2015), 107~108.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반인이 북소리로 인한 부작용들에 대해 이야기
 할 때마다 파수꾼 나는 적극적으로 그 사실들을 은폐시키려고 한다. 또
 한 그런 외중에 운반인의 행동에 대해서도 비난과 질책을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새로운 파수꾼 다에게는 끊임없이 이리의 존재와 파수꾼이 상징하는 수호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가르치려 한다.

나 아니야. 넌 네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몰라서 그래. 넌 아직 채워지지 않은 내 꿈. 나를 애태우는 갈증이란다. 이 황야의 한복판에서 난 너라는 꿈을 꾸다. 현실에선 보이지 않는 고결한 것, 사라진 옛날의 파수꾼들, 넌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한다. 예전엔 많은 파수꾼들이 이 망루 아래에서 살다 죽는 걸 자랑으로 여겼지. 일생을 여기 쓸쓸한 땅에서 보내며 그저 말없이 이리떼와 대항한 그 생애를 기뻐했단다. (중략) 파수꾼이란 그런 거야. 난 여기서 죽을 것이다. 너의 두 손이 내 눈을 감길 때, 난 다음을 이어줄 너에게 감사할 거다.(중략)

이강백(2015), 112.

나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구나. 넌 이리떼란 말만 들어도 별 별 떠는 겁쟁이인데. 망루 위에 올라가서 엎드리면 안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널 보러오지 않았니? 얼마나 큰 영광이냐? 이 기회에 말이다. 넌 너 자신이 파수꾼이라는 걸 힘껏 자랑해야 한다. 알았지, 응?

이강백(2015), 126.

파수꾼 나는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파수꾼이라는 직업에 대해 존경심을 드러내며 파수꾼 다에게도 지속적으로 전통을 이어줄 것을 부탁한다. 이러한 행동은 앞서 분석한 파수꾼 가와 방법은 다르지만 촌장의 권력 구조를 공고히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다만 파수꾼 나는 스스로 파수꾼에 대해 숭고한 의미를 부여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존재가 가치 있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 타인들로부터 인정이

나 존경을 받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러나 파수꾼 나 또한 다른 마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망루 위에는 한 번도 올라가 보지 못한 제한된 위치에 머물러 있는 인물이다. 결론적으로 파수꾼 나의 모든 행동은 마을을 유지하고 있는 권력 구조를 잘못 이해하고 무조건 맹신한 것에서부터 비롯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네 번째는 ‘운반인’이다. 운반인은 유일하게 마을과 망루를 지속적으로 왕래하는 사람이다. 그는 망루에 올 때마다 이리 껌질을 뒤집어쓰고 올 정도로 이리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다 왜 이리 껌질을 썼죠?
운반인 왜 이걸 썼느냐구? 이리가 덤비지 않도록 쓴 거지. 이리는 사람을 물지만, 자기네 종족은 물지 않거든. (나에게) 어때요, 맛있는 냄새가 나죠?

이강백(2015), 106.

그러나 그는 무서워하는 만큼이나 이리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운반인의 모습은 생래적으로 그가 환경에 쉽게 적응하고 상황을 잘 이용할 줄 아는 인물이라는 것을 대변해 준다. 그러나 텍스트를 통해서만 운반인 또한 이리의 진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실의 여부가 그에게는 그다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운반인 (중략) 지난주 화요일 밤, 북소리 들려와서 “이리떼다” 외치구 골목을 막 돌아서는데, 웬 여자가 내 어깨에 매달렸다. 열여섯이나 일곱쯤 될까요, 두려워서 바들바들 떠는 게 꽤 예쁘더군요. 말 들어보나마나 어디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달라는 거죠. 마침 골목 끝에 대피용 지하실이 있

어서……(웃는다)
나 그래서 어떻게 했나?
운반인 처음엔 꺼안아 줄려구만 그랬어요. 허지만 나도 사넨데 어디 그래요? 마침 지하실엔 단 둘 뿐이었겠다, 그 엘 바닥에 눕히고 재밀 좀 봤죠.

이강백(2015), 108.

공포에 빠진 소녀를 도와주는 와중에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운반인의 행동은 무자비하고 폭력적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에서 죄의식은 찾아보기 힘들다. 중요한 것은 파수꾼 나의 대사를 보면 “아까 그 운반인 말이다, 이리 같은 놈이다. 나의 양철북 소리를 그런 놈들이 악용하고 있다니, 마음 상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이미 운반인과 같은 폭력을 저지르는 인물들이 군중들 사이에 여럿 존재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게다가 운반인은 빈틈을 놓치지 않는 기회주의자적인 면모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에게 환경적 요소는 사실 장애 요소로 작용하기 보다는 다양한 기회로 변모된다. 그는 파수꾼 다의 쪽지를 거리낌 없이 읽어보고 이리에 관한 진실을 마을에 퍼뜨리며 다시 한 번 마을에 분란을 부추긴다. 사실 그에게 있어 이리의 존재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군중의 무리에 속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인물이다.

다섯 번째는 어린 ‘파수꾼 다’이다. 그는 <파수꾼>에서 등장하는 군중들 중에서 유일하게 갈등을 겪으며 심경의 변화를 보여주는 인물이다. 처음 망루에 온 그는 실제 파수꾼 가가 외치는 이리떼 소리에 극심한 공포감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마을을 지킬 수 있는 용감한 파수꾼이 되기를 희망한다.

다 이렇게 무서움을 탈 줄은 몰랐거든요. 저 자신도 부끄러워요. 파수꾼이 되는 연습을 할 때엔 이렇진 않았습시다. 제법 용감했죠. (중략) 마을 사람들도 감탄했어요. “최고의 눈이다. 넌 파수꾼이 되기 위해 태어났다” 그래서요, 저는 여기에 오길 지원했던 거예요. (중략)

이강백(2015), 101.

파수꾼 다는 모두가 잠든 늦은 새벽에 혼자라도 마을을 지켜내야 한다는 신념하에 용기내서 망루 위로 올라간다. 그러나 정작 눈에 보이는 것은 이리떼가 아닌 오직 넓은 황야의 지평선 멀리 떠내려가는 하얀 구름 뿐이었다. 그는 곧 이리떼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어리고 순수한 파수꾼 다의 의아함을 자아낸다. 그리고 그는 다른 방법으로 다시 한 번 마을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 진실을 밝히려고 시도한다.

촌장 (중략) 넌 이렇게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진 않겠지?
다 왜 제가 헛된 짓을 해요? 제가 본 흰 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저는 그걸 보여 주려는 겁니다. 이제 곧 마을 사람들이 온다죠? 잘 됐어요. 저는 망루 위에 올라가서 외치겠어요.

(중략)

촌장 (혼잣말처럼)……그러나 잘 될까? 흰 구름, 허공에 뜬 그것만 가지구 마을이 잘 유지 될까? 오히려 이리떼가 더 좋은 건 아닐지 몰라.

(중략)

촌장 (중략) 지금까지 이리에게 물려 죽은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는데, 흰 구름의 첫날 살인이 벌어진다.

다 살인이라고요?

이강백(2015), 123~124.

그러나 촌장은 이제까지 이리떼의 공포로 인해 발생한 마을 사람들의 사고와 죽음은 배제시킨 채, 오직 분노에 찬 마을 사람들에 의해 살해당할 자신의 안위를 두고 어린 파수꾼을 협박한다. 순진하고 어린 파수꾼다의 결심은 자신 때문에 당장 눈앞에서 살인이 벌어질 것이라는 두려움 앞에 그의 굳은 의지는 쉽게 좌절되고 만다. 그는 이리의 비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촌장이라는 권력자에게 맞설 만큼 똑똑하지도 노련하지도 못하다. 즉 권력의 구조에서 촌장과 어린 파수꾼은 애초에 이항대립적인 위치에 놓일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파수꾼 다는 군중들 가운데서도 가장 순수한 존재이기 때문에 동시에 폭력적인 권력 앞에선 가장 나약한 인물이 되고 마는 것이다.

3. 공포정치와 군중의 상관성

제일 처음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준 인물은 마을 촌장이다. 마을 촌장은 ‘이리떼’라는 허상의 존재를 만들고 여기에 ‘마을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라는 공포의 이미지를 덧씌웠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이리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존재이므로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식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정작 마을 사람들은 이리의 존재를 실제로 확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실체가 없는 공포는 군중들 사이에서 점점 그 몸집을 키워 나간다. 그러므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망루에서 들려오는 간헐적인 북소리는 항상 마을 사람들을 긴장시키고 점점 더 공포에 민감해지도록 만드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 촌장에 의해 억지로 공포감을 가지게 된 군중들의 삶에는 어느새 공포가 하나의 일상으로 자리

잡는다. 또한 이들은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가 공포에 취약하다는 의식을 알아서 배양하기 시작한다. 오랜 기간 동안 고착되어 온 마을의 관습은 사람들을 북소리만으로도 숨게 만들었고, 운반인의 말처럼 이로 인해 도망가는 도중에 발생하는 사고들은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이처럼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들 자체에는 점차 익숙해지기 시작한다.

이처럼 촌장은 마을 사람들의 불안감을 조장한다. 그의 정치 방식은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마치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진 공포를 기반으로 실현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포에 휘둘리는 군중들은 이전 이강백 작품들에서도 자주 발견할 수 있는 서사들 중 하나이다.¹⁶⁾

촌장

애야, 이리떼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 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떼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그게 뭔지 난 알기나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주는 거란다.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겐 미안해. 수천 개의 쓸모없는 덧들을 보살피고 양철북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허나 말이다,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되다고만 할 순 없어. 그는 모든 사람들을

16) 이강백의 데뷔작인 <다섯>(1971)에서는 배 밑 창고실에 있는 경비종이 공포의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고립된 공간에서 수시로 울리는 경비종은 어느새 다섯 인물들에게 보이지 않는 권력으로 작동하며 그들을 억압하고 감시한다. 여기서 조금 더 공포 정치에 대해 발전된 서사를 보여주는 작품은 <알>(1972)이다. <알>은 박물관장이 ‘알’속에 존재를 두고 군중들을 상대로 위협하며 폭력적인 권력이 생성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여기서 ‘알’은 <파수꾼>의 ‘이리’와 똑같은 공포의 존재로 봐도 무방하다. 다만 이 작품이 <파수꾼>과 다른 점은 권력자인 박물관장의 공포 정치가 왜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파수꾼>은 <알>에서 한 단계 더 진화된 공포정치를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난 네가 이러한 것들을 모두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이강백(2015), 123.

촌장의 대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는 공포정치가 마을의 질서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게다가 없는 허상을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실제로 이리에게 죽음을 당할 일도 없으니 오히려 좋은 방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군중을 지배하는 질서가 진실이 은폐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논리와 같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러한 질서는 결국 마을 사람들을 군중이라는 집단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앞으로든 촌장의 권력은 영원히 지속될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공포정치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사람들의 불안을 의식적으로 조작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¹⁷⁾

실제로 마을 사람들은 이리의 존재를 직접 본 적이 없으므로 이들의 공포는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리가 자신의 삶을 위협할 정도로 아주 위험하고 반드시 피해야 하는 강력한 존재라고 이미 예전부터 맹신해 왔다. 집단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포는 공적질서를 강요하고, 무서워하게 하고, 유지하는데 이용되며 집단의 합의와 단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포 유발자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의 주요한 결과는 이 공포를 떨쳐낼 대안이 없다는 관념을 군중들에게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한 번 공포의식을 내면화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위협을 감수하고서라도 사회적 실험을 감행하려는 의지가 줄어든다.¹⁸⁾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단 한 번도 힘을 모아서 이리떼를 몰아내려고 노

17) 프랭크 푸레디, 『공포정치』, 이학사, 2013, 167면.

18) 프랭크 푸레디, 앞의 책, 180~181면.

력해 본 적이 없다. 마을 사람들이 이리에 대한 소문을 듣고 분노에 차서 망루로 몰려왔을 때에도 이리떼의 습격이라는 거짓 외침에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바로 수궁하는 행동은 진실을 파헤치려는 의지가 부재하는 군중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결국 삶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다가오는 이리에 대한 공포는 쉽게 달아오른 군중들의 충동을 무력화시킬 정도로 강력하다.

한편 마을은 예전부터 이리떼의 습격에 대비하기 위해 망루라는 감시 체계를 설치했다. 그리고 파수꾼들은 망루 위, 아래를 지키며 이리떼를 감시해 왔다. 그러나 이리떼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즉, 망루는 이리떼를 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마을 사람들에게 안전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망루는 오히려 반대편 너머에 있는 넓은 황야가 아닌 망루 안 쪽에 위치한 마을을 감시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제러미 벤담은 그의 저서 『파놉티콘』에서 감시란 “권력을 얻기 위한 한 방법, 하나의 영혼이 또 다른 영혼을 지배할 수 있는 지금까지 전례가 없을 만큼 큰 힘”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¹⁹⁾ 즉, 마을 사람들은 망루라는 장치를 통해 자신들이 보호받고 있다고 느낀다. 반대로 촌장은 망루에서 들려오는 북소리를 이용해 마을 사람들을 감시하고 지배한다. 물론 마을 사람들은 촌장과 파수꾼들의 거짓말 때문에 이 사실을 알아차릴 수 없다. 또한 공공을 위한 감시 체계는 겉으로 보기엔 안전사회라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집단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개개인은 오히려 보호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망치는 틈을 타 어린 소녀를 겁탈하는 비도덕적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무도 운반인과 같은 행동에 제재를 가할

19) 『파놉티콘』은 건축양식 중 하나로 원형 감옥을 말한다. 죄수들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감시할 수 있는 한편 반대로 죄수들은 감시인들을 볼 수 없는 이 공간의 조직화 방식은 사회구조 전반에 관한 계획과 연결되어 일종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토대가 되었다. 벤담은 ‘일정 수의 사람을 감시하는 기능을 지닌 이상적인 건축 아이디어라고 했다. 아르망 마틀라르, 『감시의 시대』, 알마, 2012, 15~16면.

수 있는 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망루라는 안전장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파수꾼들에 의해 수시로 들려오는 북소리는 안정상태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독립변수로 작용하며 항상 마을을 불안정한 상태에 빠트린다. 불안정한 마을은 이리라는 위험요소로 인해 촌장의 지배하에 계엄령이 내려지고, 곧 특수한 예외상태라는 현상을 만들어 낸다. 여기서 예외상태란 상이한 권력의 형태들(입법, 행정 등)이 아직 구분되지 않은 원초적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예외상태라는 패러다임은 문민적 영역 속에 군사적 전시 권한이 확장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효력이 정지되는 것을 법률적으로 인정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²⁰⁾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예외상태는 어느 한 순간의 특수한 형태가 아닌 점차 마을을 지배하는 하나의 통치 패러다임 그 자체로 정착하게 되면서 촌장의 권력이 무소불위의 독재로 변질된다는 것에 있다. 마을 사람들은 결코 촌장의 지배를 벗어 날 수 없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 촌장이 휘두르는 권력에는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확실한 명분이 있다. 그리고 군중들은 이리때 보다는 촌장의 권력이 자신들에게는 덜 위협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폭력적인 권력은 어느새 사회를 이끌어가는 관행이 되고 군중들은 점차 익숙해져 의식조차 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인간에게 생존은 다른 무엇을 포기하고서라도 지켜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 홉스는 이를 공포와 불안에 대한 자기보호(방어)라고 표현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자기보호를 실행할 수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력한 존재와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 개인을 보호해주는 자기보호 장치, 즉 리바이어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리바이어던은 일종의 인위적인 국가를 뜻한다. 이는 인간들을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대신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누리던 권리나 물리적 모두를 리바이어던에게 양도해야 한다는 계약을 맺어야 한다. 그리고 인간들은 공포와 불안대신 이 계약의 지배를 받는 쪽을 선택한다.²¹⁾ 마을 사람들에게 이리로 인한 죽음의 공포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두려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해서 망루로 몰려왔을 때조차 파수꾼 다나 촌장의 이야기에 쉽게 인정하는 모습은 그들이 군중이라는 특성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생존을 담보로 의존할 수 있는 존재는 결국 촌장과 파수꾼들이 유일하다고 이미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다소 폭력적이더라도 촌장의 지배 아래 머무는 것에 더 확실한 안정감을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은 불가피 한 것이 아닌 어느 정도는 스스로 안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과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다.

4. 권력 작동 원리의 승인구조

결론적으로 <파수꾼>에서 작동하고 있는 권력의 구조는 단순히 마을 지도자인 촌장 한 명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푸코는 권력이란 것이 어떤 특정한 실체의 속성도 아니며 ‘무엇’의 범주에 속하지도 않고 누군가에 의해 소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므로 권력은 사람들이 서로 관계 맺게 만들어주는 어떤 전략이자 관계이자 기능으로 보았다. 누군가에 의해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이 사회적으로 행사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변환되는 권력의 위치이다. 그리고 권력은 개인이 아닌 사회 집단들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집단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²²⁾ 진실이 은폐되어 있는 세계에 고립된 군

20) 조르조 아감벤, 『예외상태』, 새물결, 2009, 21면.

21) 권정우·하승우, 『아렌트의 정치』, 한티재, 2015, 78~79면.

중들은 권력자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권력자 또한 자신을 따르는 군중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파수꾼>에 등장하는 군중과 촌장은 서로 불가분한 상호관계성을 가진다. 즉, 마을과 망루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권력의 구조는 촌장 혼자가 아닌 그 곳에 속한 모든 군중들과 함께 완성해 나아가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촌장과 군중의 관계는 충분히 전략적인 관계로 볼 수 있으며 만약 사회적 조건이 바뀐다면 언제든지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

촌장을 제외한 파수꾼과 운반인, 마을 사람들은 각자 다른 의식과 행동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군중이라는 공통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여기서 군중의 속성은 무지한 집단이라는 특징도 있는 반면 어느 정도는 권력 메커니즘의 허위성을 파악하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권력의 구조에 지배당하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고 이미 인식하고 있는 양면성을 보여주는 집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군중들의 행동은 전체주의라는 결과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전체주의는 민족이나 국가의 이익을 내세우지만 그것을 실제 현실에서 찾지 않고 이데올로기라는 허구 세계에서 찾는다. 그리고 대중이 현실의 실제 이해관계를 보지 못하도록 고립시킨다. 이러한 지배가 제거하려는 대상은 ‘자발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다. 이처럼 전체주의는 아예 정치가 실현되는 공간 자체를 없애려 하는 체제이다.²²⁾ 만약 마을 사람들이 이리떼가 허상이라는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면 이들은 단순히 권력자의 지도에서 벗어나 하나의 공통된 이슈를 공유하고 토론하게 되는 공중²⁴⁾으로 탈바꿈 될 수도

22) 미셸 푸코, 『담론의 질서』, 새길, 1993, 149면.

23) 권정우·하승우, 앞의 책, 155~157면.

24) 여기서의 공중은 가브리엘 타르트가 주장하는 공중으로써, 육체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으며 그 결합이 완전히 순수한 정신적인 개인들의 분산으로 이해되는 공중을 의미한다. 그 관계는 그들의 확신이나 열정의 동시성과 함께, 그들 각자가 지니고 있는 의식, 즉 이런 관념이나 저런 의지를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똑같은 순간에 공유

있다. 군중들이 진실을 알고 혁명을 일으켜 마을의 통치 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다면 이들은 하나의 새로운 정치공중으로도 변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중은 폐쇄적인 성격의 집단에서 벗어나 점차 그 무리가 무한히 확대되며 다양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게 된다. 사회집단이 공중으로 변형되면 그 세계는 점점 지성화되어 간다. 공중의 작용은 더욱 지적이고 양식이 있는 만큼 이는 군중의 행동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²⁵⁾ 그러나 파수꾼 다는 촌장의 위협적인 설득으로 인해 결국 진실을 은폐하는데 억지로 동참하게 된다.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은 현재 벌어진 사건 자체에만 천착할 뿐 파수꾼 다처럼 궁극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사유하려 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리고 미숙한 파수꾼 다 역시 군중들을 설득하여 여론을 이끌어 낼 만큼 촌장의 권력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촌장의 지배를 받는 군중의 모습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동시에 촌장은 마을의 지도자로서 강력한 권력을 그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다.

파수꾼 가, 나, 다가 왜 익명으로 표현됐는지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추측해 볼 수 있다. 앞에서 파수꾼들을 분석해 본 결과 이들은 각자 군중의 다양한 모습을 형상화 하고 있었다. ‘파수꾼 가’는 촌장의 지배하에 있는 충실한 하수인이다. ‘파수꾼 나’ 또한 촌장의 통제 아래에 적극적으로 머무르며 마을을 지키기 위해 망루 아래에서 최선을 다해 복을 치는 인물이다. 그는 이리가 존재한다고 믿으며 그것을 하나의 진리로 여기고 행동한다. 즉, 그는 진심으로 이리로부터 마을 사람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반면, 복소리로 인해 벌어지는 부작용들은 모른척하는 아이러니한 행동을 보이며 결론적으로는 촌장의 공포정치에 일조하고 있다. 이는 그 역

하고 있다는 그들 각자가 지니고 있는 의식이다. 그러므로 공중은 군중과 달리 여러 집단에 동시에 소속될 수 있으며 그 집단은 무한히 확대 될 수 있다. 가브리엘 타르트, 『여론과 군중』, 지도리, 2012, 15~16면.

25) 가브리엘 타르트, 앞의 책, 50면.

시도 진실의 여부를 떠나 기본적으로 권력의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파수꾼 나는 망루에 새로 오게 된 어린 파수꾼 다를 훌륭한 파수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임무를 맡고 있다. 교육이라는 제도는 한 사회 안에서 체제 밖에 놓여 있는 개인들을 그 정치 체제의 한 구성 인자로 적응시키는 역할을 한다.²⁶⁾ 즉 파수꾼 나는 교육을 통해 자신과 같은 파수꾼을 양산해 내려고 한다. 그리고 파수꾼 다를 교육하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파수꾼 나는 마을 사람들과는 달리 군중들 속에서도 지식 계급에 속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파수꾼 나는 파수꾼이라는 존재에 대해 진심어린 존경심을 드러내며 자신 또한 훌륭한 파수꾼이 되길 강력하게 희망한다. 그는 파수꾼이라는 직업을 두고 마을을 위해 헌신하는 숭고한 존재로 승격시킨다. 그런 의미에서 파수꾼 나 또한 직접적으로 마을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확실히 그들과는 다른 위치에 존재하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이는 곧 파수꾼과 마을 사람들의 관계가 수평이 아닌 수직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결국 파수꾼이라는 직업은 마을의 공포감을 부풀리며 촌장의 권력이 더욱 공고하게 유지될 수 있는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파수꾼 다’는 이리떼의 진실을 알게 된 후,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본 것을 말함으로써 마을을 지배하고 있는 공포를 깨트리려고 했다. 이러한 어린 파수꾼의 행동은 마을 사람들을 폐쇄된 군중에서부터 스스로 새로운 여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공중으로 이끌어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촌장은 오히려 마을의 질서가 깨지고 혼란이 벌어진 사태를 빌미로 어린 파수꾼을 협박한다. 어린 파수꾼 다는 우연한 기회에 진실을 알게 된 것이지 촌장의 협박에 맞설 정도로 권력의 생애적인 속성에 대해 깨달은 인물이 아니다. 그는 어리고 무지하고 순진하다.

그래서 아직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마을의 혼란을 지레 상상하며 새로운 공포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촌장이 이야기하는 진실의 부작용은 사실 그 실체가 불분명한 추측일 뿐이다. 푸코는 사회 안에서 진리라고 여겨지는 것은 사람들을 복종하게 만드는 동시에 여기에서 권력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은 현실 속에 새겨져 담론화 되며 사람들이 이를 맹종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권력은 현실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넓게 확산된다.²⁷⁾ 어린 파수꾼에게 또 다른 혼란을 겪게 될 마을의 모습은 새로운 공포로 다가오며 결국 현재의 통치 체제는 다시 한 번 진리로 받아들여진다. 마을로 돌아오지 말라는 촌장에 말에 침묵한 행위는 암묵적 동조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파수꾼 다의 좌절된 모습은 앞서 존재하던 파수꾼 가, 나와 별반 다를 것 없이 그들의 전처를 그대로 따라갈 것이 예상된다. 그들은 결국 망루를 지키면서, 동시에 이리의 대한 진실을 알고도 침묵하는 공범이 된다. 그리고 이전까지 마을을 유지시켜주던 기존 체제에 순응하며 결과적으로는 촌장의 권력이 유지될 수 있게 도와주는 가장 적극적인 사회적 위치에 머물고 있다. 그러므로 파수꾼 가, 나, 다는 서로 달라 보이지만 결국엔 전체주의 지배 아래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군중의 모습을 형상화하기 위해 익명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파수꾼>의 결말이 이처럼 비극적으로 치닫는 원인에는 마을 사람들과 운반인의 역할도 두드러진다. 우선 군중의 집단을 상징하고 있는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을 폭도로 만든 원인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그들의 분노는 항상 제3자를 향한 박해로 치닫는 경향을 보이며 궁극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의 분노 대상은 이리떼→촌장→운반인 순서로 지속적인 변화를 보인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분노의 대상 그 자체보다도 어딘가 분노를 터트릴 수 있는 특정 대

26) 게랑 페리, 『정치 엘리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9, 139면.

27) 폴 벤느, 『푸코, 사유와 인간』, 산책자, 2009, 151면.

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는 것 자체에 더 큰 의미를 둔다. 이런 점에서 군중들은 항상 잠재적인 박해자들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은 또한 자신들의 사회를 전복시키려는 사회 오염원들을 그 사회에서 내쫓아버리기를 꿈꾼다.²⁸⁾ 그러므로 마을사람들에게 첫 번째 박해의 대상은 촌장이었지만, 곧 촌장과 파수꾼 다의 거짓말로 인해 그 분노의 대상은 운반인으로 옮겨간다. 운반인에 대한 처분은 곧 마을의 불안을 야기 시키는 원인을 불식시키는 것과 같다. 이 같은 처분은 마을의 안정을 위해서라는 명목 아래 합리적 폭력이란 이름으로 이용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의 지적 사유는 결코 작동하지 않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강백이 극 중 마을 사람들 역할에 왜 실제 관객들을 이용했는지에 대한 의도도 한 번 짚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파수꾼>에서처럼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에 대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곧 군중과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파수꾼> 속 군중처럼 될 수 있다. 이강백은 희망의 가능성 없이 반복되는 비극적 결말을 그려내며 마을 사람들의 역할을 관객들에게 덧씌워줌으로써 그들의 사고를 자극하고 각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덧붙여 이강백은 해설자, 마을 촌장, 운반인을 모두 한 사람이 연기하도록 설정했다. 이 세 명의 인물들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설자를 제외한 나머지 두 인물은 권력의 구조를 잘 이해하고 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줄 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서로 다른 사회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정은 결국 하나의 권력 구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다양한 인물들의 양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겠다.

28) 르네 지라르, 『희생양』, 민음사, 2007, 30~31면.

5. 결론

1970년대는 공연법이라는 국가 통치 아래 직접적인 검열이 이루어졌던 시대였다. 이러한 경향은 점점 작가나 극단의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며 끝내는 이들 스스로가 자기검열을 자행하는 경우까지 발생시켰다. 이러한 경향 가운데 이강백은 당대 현실을 반영하려고 노력한 작가 중 한 명이다. 그는 사회에 대한 자신의 의식을 표명하기 위해서 우화라는 우의적 기법을 사용하여 우회적으로 작품을 썼다.

<파수꾼>은 이강백의 초기 작품들 중에서도 정치적 알레고리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공포정치 아래 권력이 생산되고 또 이러한 통치체제가 유지되는 방식에는 권력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이 모두 가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이제까지 이강백 초기작품들이 주로 권력을 두고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이항대립적인 갈등서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논의를 보다 확대시켜 궁극적으로 권력의 구조 자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가담하고 있는 다양한 인물들의 대응 양상을 연구 대상으로 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본고는 촌장뿐만이 아닌 <파수꾼>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인물들에서 군중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발견하고 이들이 스스로 권력의 메커니즘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서사에 주목했다. 마을 사람들은 가장 단순한 군중의 무리를 연상시킨다. 이에 비해 파수꾼 가, 나, 다 그리고 운반인은 군중들 사이에서도 각자 서로 다른 특이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결국 이들의 행동은 모두 전체주의라는 통치 이념을 탄생시키는데 일조한다. 이를 통해 권력이란 특정 계급이 아닌 모든 계급의 상호관계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진실을 알리려 했던 파수꾼 다의 의지는 촌장에 의해 좌절된다. 마을로 돌아오지 말라는 촌장의 말에 파수꾼 다는 침묵한다. 침묵

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암묵적인 동조를 의미한다. 이로써 <파수꾼>의 등장인물들은 모두 마을을 지배하는 폭력적인 권력의 순환 구조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강백의 정치적 우화인 <파수꾼>은 이제까지 정치극의 한 형태로 많이 연구되어 왔지만, 작품 내재적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단순히 현실 세태를 반영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권력의 보편적인 진리를 부각시켜 상징적으로 구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작품의 관점에서 보면 비극적이지만, 이를 수용하는 관객의 입장에서 보면 다시 한 번 현실 속 사회 구조에 대해 재고해 볼 수 있도록 다각도적인 각성을 유도하고 있는 서사라고 볼 수 있겠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이강백, 『이강백 희곡전집1』, 평민사, 2015.

2. 단행본

권정우 · 하승우, 『아렌트의 정치』, 한티재, 2015.

김성희, 『한국 동시대 극작가들』, 박문사, 2015.

이영미, 『이강백 희곡의 세계』, 시공사, 1998.

민족문화사연구소 희곡분과 편, 『1970년대 희곡 연구 1』, 연극과 인간, 2008.

한국극예술학회, 『이강백』, 연극과 인간, 2010.

가브리엘 타르드, 『여론과 군중』, 지도리, 2012.

게랑 페리, 『정치 엘리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9.

귀스타브 르 봉, 『군중심리』, 문예출판사, 2013.

르네 지라르, 『희생양』, 민음사, 2007.

미셸 푸코, 『담론의 질서』, 새길, 1993.

아르망 마틀라르, 『감시의 시대』, 알마, 2012.

엘리아스 카네티, 『군중과 권력』, 바다출판사, 2002.

조르조 아감벤, 『예외상태』, 새물결, 2009.

폴 벤느, 『푸코 사유와 인간』, 산책자, 2009.

프랭크 푸레디, 『공포정치』, 이학사, 2013.

3. 논문 및 평론

김미선, 「수용 미학의 관점에서 본 희곡 <파수꾼>」, 『한국극예술연구』 제29집, 한국극예술학회, 2009.

김성희, 「한국 정치극 연구(1)」, 『한국극예술연구』 제18집, 한국극예술학회, 2003.

백현미, 「이강백 희곡의 반복 구조와 반복의 철학」, 『한국극예술연구』 제9집, 한국극예술학회, 1994.

Abstract

A study on Lee KangBeak's Drama <Watchman>

- the mechanism of the power through the masses -

Cho Eunjung

In Lee Kangbeak's early 1970s works, the situations that can infer the political realities of the time are continually described. The situations are mostly about the ruling classes that dominate violent power structure and the masses obedient to the ruling classes. The writer incarnated the times using allegory to avoid oppression such as Public Performing Act. Therefore, the studies on Lee Kangbeak's works at this times are mostly dealt with in external angle. However, as the writer declared, allegory has the characteristic that can achieve the universal truth surpassing the time and the place.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at universal realities this work represents in an approach of internal angle.

This study focuses on <Watchman> which shows remarkable political allegory among Lee KangBeak's early works. The narrative draws the various aspects of the conflict across the fear of the attack of the wolves, the ignorance of the masses, and the question of the existence of the wolves posed by the ruling person of the power, the village chief. This study sees the three elements contribute to produce and firmly maintain the wrong form of ruling system. In other words, under the circumstance of the fact covered up, the masses swept away by the delusional ideology tend to be included in the control of the power voluntarily. And this phenomenon makes the ruling ideology, totalitarianism. The repetition of the people not progressing infers that the tragic situation will be caught in a vicious circle.

To conclude, <Watchman> shows how violent power structure incarnates through various characters. Particularly, social structure described as totalitarianism can be maintained by the masses of various classes as well as certain type of ruling class involving. This leads awakenings on the mechanism of the power which exists in the real world and provides an opportunity for readers to reconsider the social structure.

Key words : authority, crowd, politics of fear, totalitarianism, violence

접수일: 2016년 4월 30일
심사기간: 2016년 5월 16일~5월 31일
게재결정: 2016년 6월 3일